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우주 천하가 내마음에 직결돼 있어요

☞ 15면에서 계속

스리는 게 아니어야 됩니다. 불에 들어가면 불덩어리로 하나가 되고, 물에 가면 물로 하나가 되고, 공기로 가면 공기로 하나가 되고, 흙으로 가면 흙으로 하나가 되고, 어떠한 보이지 않는 영계로 가면 영계로 하나가 되듯, 모든 것이 내가 될 수 있어야만 그런 여건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뚱이 속에 자기와 같이 움직이는 그것도 못 믿으니 어떡합니까? 그것부터 믿어야 하는데요. 아무리 회초리가 가늘고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한데 합쳐서 뭉쳐놓으면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내 몸뚱이 속의 그 수십억의 의식들이 한 데 합쳐 돌아가는 데 어찌 그걸 꺾겠습니까? 이것부터 아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픈것이 낫지 않으면 "에이, 주인공도 쓸데없어." 이렇게 일축해버리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맡겼는데도 안된다고 마음으로 언짢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할 사람이니까 안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지요. 충주에서 시멘트 공장에 다니는 사람의 부인이 백혈병이 걸려서 왔는데 구박이 자심하다고 울면서, 그때 돈 25만원인가 하고 쌀한말과 초를 가지고 와서 정성을 들였습니다. 이 소저 할머니가 여관 하실 때니까 오래전 일이죠. 그런데 그때는 지금처럼 여러분들한테 마음공부를 가르치지 않았을 때여서 속성과로 들어갔습니다. 마음공부는 못시킬 망정 그 울고 불고 하는 것이나 없어주겠다고 생각을 할 때인데, 그 보살이 여관에서 며칠 있으면서 병이 나아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을 해보니까 오진을 했다고 하면서 내보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소릴 듣고, 오진이라는데 왜 그런 돈을 없앴느냐고 하면서 정성들인 돈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소저 할머니더러 그 보따리와 봉투를 그냥 놔두게 했는데, 신도들 오면 밥이라도 해주면 좋을텐데 왜 그러십니까 하시는 걸 "그냥 놔 두십시오, 쓸 데가 있습니다"하고는 그냥 뒀는데 찾으러 왔으니 안 줄수 없지요.(웃음) 그것을 탐내는 사람같으면 부처님 앞에 정성드리고 간 것을 왜 되찾으러 왔느냐고 그러겠지만, 가지러 올 줄 알고 여기 놔두었다고 하고는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부인은 나았는데 본인이 암에 걸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업보라는 걸 면치 못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에 종속되어 있는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없애면 저게 생기고, 저걸 없애면 이게 생기고 이러는 거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요. 그렇게 찾아가고는 염치가 없으니까 오지는 못하고 그후에 어떤 사람이 와서 딱하다고 하면서 "어린애도 낳게 해주셨고, 병도 낫게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좀 낫게 해주십시오"하는걸 "내가 뭐 병원 의사입니까?" 하고선 그래도 마음으로 안되어서 감자 물이라도 해잡수라고 했는데, 그 감자물이 낫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살아 있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죽고 사는 것을 떠나야만이 진실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죽는 것이 두려워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부처님이 계시면 살려야지 죽이는 법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이거 안되니까 주인공도 쓸데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수억 겁 광년 동안 미생물에서부터 존재해오면서 나를 진화시키고, 쫓고 쫓기면서 형성시켜 고등동물까지 이끌고 온 장본인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에서만이 해결을 하며, 마음으로 생긴 병은 마음으로 해결을 해야 하고, 육신에 병난 것은 육신으로 대처를 해서 병원에서 고쳐 나가는 거지요. 물질적인 문제도 없어서는 안되겠죠. 일체 만물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 염파가 걸러걸러 돌아가면서 확립이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쏜살같이, 차이도 없고 초도 가릴 것 없이 전달이 되면 그냥 한꺼번에 전달이 되는 거니까요. 자가발전소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 발전소에서 전력이 나갈 때는 동시에 전력이 나가듯이, 전파가 흐르고 통신이 되듯이 말입니다. 마음에서 한 번 생각하면 두뇌로 해서 사대로 전파가 되고 통신이 되듯이, 통신이 되면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따라주게 되죠. 마음은 체가 없어서 의식도 체가 없거든요.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주위의 모든 것을 다 살펴주고 내 신장이 내 부처를 동시에 모시고 다니는 겁니다.

전에 어느 고등학교 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방을 메고 어느 골목으로 들어섰는데 한 열댓 명이 나서더니만 칼을 들고 위협을 하길래, 아무 것도 모르는데도 그 순간 급하니까 내가 일러준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럭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순간 "아이고, 주인공!", "아이고, 스님, 주인공!" 했답니다. 급하니까요. 하하하. 그리고는 그냥 거기다가 전념을 다하느라고 그 열댓명이 칼을 들었는지 무엇을 들었는지도 모르면서 우두커니 쳐다보고 섰으니까, 오더니만 아래 위로 전부 뒤져 돈 만원이 나오니까 시계도 차고 그랬는데도 그 돈만 가지고선 "이 새끼는 아무것도 볼 것 없어." 그러면서 그대로 가더랍니다. 그 도리를 몰랐다면은, 발길질 한번 안하고 그렇게 가진 않았겠죠. 그래서 다 간 뒤에 벌컥 주저앉아서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급하게 맡기니까 급하게 조달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의식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다 점령을 해 가지고 악하던 마음을 선하게 해놓으니까 그냥 갈 수밖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어떻게 생각하면,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는가?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것만 가지고 관습에 의해 꽉죄어서 옴짝을 못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되겠고, 이렇게 하면 못 되겠고 하는 생각이 뚜렷하며, 상식은 이런 이런 것이다는 게 틀이 박혀서 진실한 믿음으로 확실히 들어가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좀 무식하고 바보 같아야 더 빠르니라' 하셨습니다. 아는게 많으면 망설이는 게 많거든요. 이게 정말인가? 이게 거짓 아닌가? 거짓이고 잘못이고 뭐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 믿으라고 하는데요. 타의의 어떤 형상을 믿으라고 해야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살펴보는 거죠.

이름을 믿으라고 하나요, 허공을 믿으라고 하나요? 못났든 잘났든 자기 믿으라는데 왜 못 믿습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아무 것도 없을 겁니다. 고통도 없을 거고, 즐거움도 없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좌선을 해야만 되는 줄 알고, 좌선을 해야만 큰 무슨 불법을 깨닫는 도리나 얻을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생활그대로가 불법이고, 그대로 참선이고, 그대로 공안이고, 그대로 여여함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라 하는 것이, 공(空)자가 들어간 것은 왜냐하면 고정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공'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고정되게 한 가지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가지만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저 찰나찰나 돌아가면서 요것 보면 마음이 달라지고, 저것 보면 달라지고, 요것 들으면 달라지고, 저것 들으면 달라지면서, 쉼없이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지요. 그러니 그대로 여여한 줄 알고 그대로 참선인 줄 알고 그대로 불교인 줄 알고 살림살이 하는 게 종교인줄 알고 돌아가야만이, 진실히 믿어지고, 또 죽게하는 것도, 살게 하는 것도 형성시킨 것도 주인공인데 어디 생사가 있을 겁니까? 그 생과 사의 가운데 움직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모습으로 형성이 돼서 그저 사는 날까지 살다가 한번 병들고 쓰러지면 그뿐입니다. 보잘것 없지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모릅니다.

하루살이를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듯이, 저 산천초목, 저 산봉우리, 큰 바위가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강원도 금강산의 일만이천봉이 우리를 볼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루살이로 보겠지요! 일만이천 봉이라고 하는 것도 뜻이 있고, 팔만구암자하는 것도 뜻이 있지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얘기도 현실 얘기고 미래의 얘깃거리도 바로 오늘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이렇게 좋은 세상을 못 보고 우리 조상들이 살았다고 하지만 그 조상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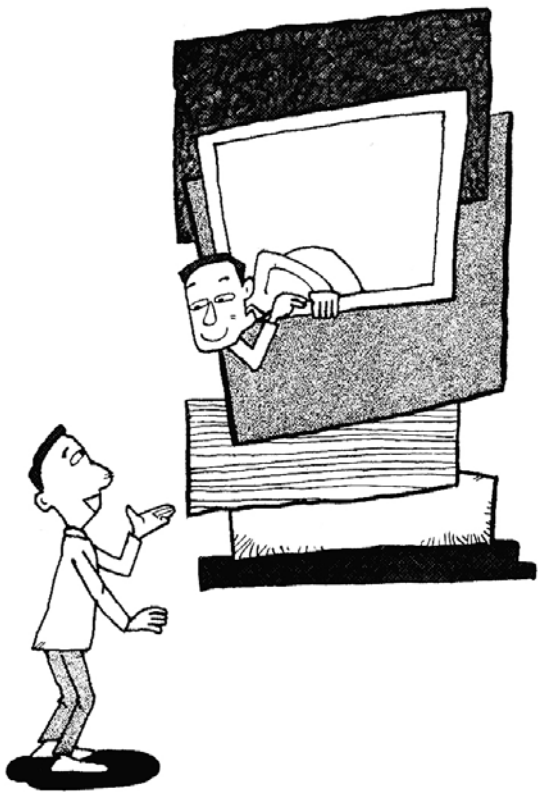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헌

지금 현실에 우리들로 나왔기 때문에, 그때 그 조상들이 못 먹었느니 못 살았느니 할 것도 없지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진짜로 하려면 생활 속에서 근면하고 착실하고 진실하게, 내가 지금 금방 죽는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안하는 그 믿음으로, 네가 형성시킨 거니까 네가 없애려면 없애고 좀더 살게 하려면 더 살게 하라고 그렇게 믿어보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한번 갈 거 그렇게 믿으면 좀 어떻습니까? 그리고 뜻으로 항상 이 몸뚱이 속에 사는 중생들이 전부 한마음이 돼서 중생과 부처가 둘 아니게 한마음으로 한다면, 얼마나 양호하게 건강을 유지할까요?

이 공부가 사실 따지고 본다면 엄청난 도리입니다. 그거를 느껴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맛을 모르고 그렇기 때문이지요. 깡통은 깡통끼리 살기 때문에 왈가닥 왈가닥하고 살 거고, 금은 금대로 살기 때문에 빛이 있을 거고, 그냥 그대로 사는 거지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중세계는 체로 치는 거와 같다 그랬어요. 상세계로 올라가느냐, 하세계로 떨어지느냐에 달려 있죠. 그리고 지난 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독사같이 살았으면 독사의 몸을 지니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운 것이죠. 그 보이지 않는 자동적인 인과가 그렇게 무섭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살고 있던 의식이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다 그 독사의 모습을 가졌으니 그 얼마나 지옥이겠습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자기가 남한테 욕을 했으면 욕한 것이 입력이 돼서 욕을 또 먹게끔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인에게 맡겨야 해요. 주인이 하는 거지 자기 육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텔레비전 속에서 방송이 나오지 텔레비전 케이스에서 나옵니까? 텔레비전 케이스가 텔레비전이 아니고, 텔레비전 오장육부가 바로 텔레비전이거든요. 오장육부가 한 데 합쳐서 부합이 되어가지고 나오지, 부합이 되지 않고 선 하나만 끊어져도 안나와요. 그러니 텔레비전 케이스를 믿지 말고 텔레비전 속의 그 모두를 한마음으로 믿으리는 겁니다. 채널만 돌리면 이게 나왔다, 저게 나왔다 하는데 그걸 다 한꺼번에 용도에 따라 볼 게 있으면 보고, 보기 싫은 건 다른 번호로 돌리고 해서 그냥 그대로 거기만 믿어야지 어떻게 껍데기를 믿습니까? 내 육신은 오장육부의 모든 의식들은 바로 한마음을 중시하고 들어가거든요. 표현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구가 그렇게 돌아다녀도 우리들은 지구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모르시죠? 아는분 있다면 손 들어 보세요.(웃음) 지구가 어디로 돌아다닙니까?

인간 속에 든 세포 하나하나의 의식들이 인간이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알려주는 것이죠. "이렇게 다니는 것도 나구나"하고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죽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 믿으려면 진실히 믿고, 병이 낫고 안 낫고, 되고 안되고 그런 걸 떠나서, 자기를 수억겁을 통해서 쫓고 쫓기면서 진화를 시키고 그랬던 것도, 쫓고 쫓겨봐야 그게 마음이 발전이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공부로 알라,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믿는 마음으로 허, 또 무너지게 했군"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웃고 쳐다 본다면 그대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모두 이 소리를 믿지 못하면 자기를 자기가 믿지 못하고 버리는 것과 한가지입니다. 자기 자성신을 진짜로 믿어야지, 어째서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자성신을 그렇게 믿지 못합니까? 이 세상에 무엇을 믿을게 있습니까? 대신 죽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신 아파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식들이 아무리 효자, 효부이고 부부지간이 아무리 정이 좋다 하더라도 대신 똥 눠주고, 대신 아파주고, 대신 죽어주고, 대신 잠자주는 사람 없습니다. 진짜로 자기를 자기가 믿어서 모든 가정이 밝게 살 수 있게끔, 자기 능력을 기르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법입니다. 그럼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시지요.

제가 진짜 깨쳤는지 궁금해요

문 저는 옛날에 '부모미생전 본래면목 시심마'라는 화두를 듣고 참선을 했습니다. 부모가 나기 이전에 내 참마음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 생각 간절하게 참선을 했는데, 그때 가을이라 어디론가 가고 싶고 쓸쓸하고 또 세월의 덧없음도 느끼면서 무상 살기를 느끼게 했습니다. 때로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 때부터 해가 서산에 질 때 시작해 저녁 한 삼경이 되었는데 잠이 와 깜박 졸은 그 순간에 나는 깨어 있고, 내 의식이 저 온 허공간 온우주에 꽉 찬 느낌이라 떨리고 희열에 찬 마음으로 감지를 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이상한 생각에 불과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흔히 잠이 들면 아무것도 없고 캄캄해야 되는데 잠이 드는 그 순간에 깨어있고, 또 내 속에는 또 하나의 내가 있구나하는 그 정도는 체험을 했는데, 불 속에 연꽃이 피는 소식과 개미가 수미산을 업어 가는 도리를 알고 싶고, 또 옛날 견딜 수 없는 고독감에 솔나무 등걸을 쓸어 안고 아빠라고 나직이 되뇌었던 그때, 그 아빠는 길없는 길을 인도를 했는지는 모르겠고, 저는 내면의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이건 길없는 길을 인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참 많이 듭니다. 그리고 견딜수 없는 절망에 저 무의 심연으로 몸을 던지려는 순간 강과 나와 하나가 되었던 그 캄캄한 산중에 어디선가 수꿕새 우는 소리가 슬피 들릴 때, 바람이 간간이 불어서 온 나무 숲을 뒤흔들때, 무릎을 치면서 '아하, 너와 나는 둘이 아니구나. 너와 나는 한 뿌린데 무엇을 빼앗고 빼앗길 것인가'. 그때 그건 분별심인지 진짜 깨친 건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답 따지고 보면 전부 잔소립니다. 지금 이러니 저러니 하고 말씀하셨지요?

그 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신도:저입니다.〉

전데, 그 저 하나만 있으면 요런 생각을 하지도 않고, 저런 생각하지도 않고, 요거를 보지도 않고 저거를 보지도 않았을텐데, 그 저가 너무 많아서 요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요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도:아직 듣는 마음자리를 깨치지 못해 가지고 지금도 방황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방황하는 것조차도 거기 놓으십시오. 안되는 것도 놓고 방황한다는 것도 놓고 또는 모른다는 것도 놓으세요. 지금 비행기 프로펠러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무슨 이것 저것을 끌어냅니까?

"너만이 물리가 터지게 할 수 있어. 너만이 이끌어 갈 수 있어"하고 믿고 맡겨야 합니다. "작년에도 어저께도 이끌어가고 있었으니까 지금도 이끌어 가겠지"하고 다 거기다 맡겨놔요.

병이 병이 아닌 도리

문 지구 현상계에서 보면 지구 속에서 화산이 일어나는 것은 지구 속에서 나오는 작용이고, 바다에 해일이 일고, 홍수가 생기고, 전쟁도 일어나고 지구의 대기권이나 인간들에게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작용을 볼때, 지구라는 몸체는 처음 형성될때 인연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물질이 뭉쳐졌다면, 파괴·난리라고 주장하기 이전에 지구 스스로가 자기를 지키고 정화하기 위한 작용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람의 몸체도 인연에 의한 업식으로 뭉쳐진 것이라면 우리가 화산과 홍수가 작용을 하듯이 나를 제도하고 정화하기 위한 주인공의 작용이라 생각하니 그대로 넉넉한 마음이 듭니다. 지구가 작용을 하였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듯이, 나한테서 나온 것을 제자리에 도로 놓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스님 법문 중에 '병이라고 이름 짓지 마라. 병이 병이 아니다'고 하신 말씀과 뜻이 같은지요?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도 공부가 되어가는 증명인지요?

> 진짜로 자기가 자기를 믿어서 모든 가정이 밝게 살수 있게끔 능력을 기르는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법입니다

답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간다 하더라도 역력하게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고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패기도 생기고 잔잔한 물결같이 편안하기도 하면서 편안하고 잔잔한 그 속에서 솟아 나오는 심력은 정말 그 무엇도 당해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끄달리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가신다면 잘 되실 것입니다. 계·정·혜 이렇게 했는데, 계율도 한마음 속에 들어 있고, 지혜도 한마음속에 들어 있으니 계·혜·정이죠. 계와 혜도 정속에 들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정 속에 듦으로써 지혜가 풍부해서 해탈이 생기고 해탈지견향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도반으로서 열심히 해보십시다.

못났든 잘났든 자기를 믿는 마음의 능력이란 태산을 지고도 남음이 있고, 우주를 뚫을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도리인데, 믿지 못해 허우적거리지 말고 한시바삐 더욱 간절히 단단한 믿음으로 세세생생에 이 중(中)세계의 통 속에서 벗어납시다. 틀림없이 거기서만이 할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딱 뒤집어 놓거나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패기가 생기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한 다리 절름발이며, 한쪽 눈 장님이며, 한쪽 귀 귀머거리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이저 광선이 그렇게 지금 세계적으로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지만 이 마음의 심력만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지만 50%밖에 안되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좀더 우리 도반으로서 내가 더 높으니 네가 더 얕으니 이런 걸 떠나서, 부처님께서는 자기 아님이 없기 때문에 높은 게 없이, 그저 하다 못해 개가 염원을 해도 개로 화해서 병을 고쳐주시고 또 무명을 벗겨주셨기에, 어떠한 개체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전체 한 덩어리의 불기둥을 표현해서 부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체가 없어서 전체 한 기둥을 말합니다. 한 기둥의 마음으로서 전체 한마음으로 심력을 길러 애고·병고 등 그 어떠한 업식이라도 다 태워버립시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생활이 불법이고 참선이고 공안입니다
수억겁 형성시켜온 자성신을 믿으세요

협찬 한마음선원 신도회